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범행 인정... ‘추가 대상 물색’은 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첫 재판...의견서로 “생각하기 나름” 주장 오는 26일 재개...유가족·친구 “엄중 처벌·영원한 격리” 촉구

개인적 분풀이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30)이 살인은 인정했으나, 추가 범행 대상 물색에 대해선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2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대성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후 흉기를 지닌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했던 건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함이라고 판단, 살인에 비협의로도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혼자 영업하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물색했다”며 “먼저 방만한 주점에서 주인이 맨발 상태를 경계하자 뛰쳐나갔고, 이후 찾은 노래방에서는 접객원을 불러달라거나 문을 닫아달라며 범행을 시도했으나 박대성

의 문신을 무서워한 주인이 나가자 또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박대성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나 살인예비 혐의의 경우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좀 더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대성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을 마무리하기 전 재판부는 유족에게 법정 진술의 기회를 줬다.

A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뒤 주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중

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로 보이는 친구들도 엄중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박대성은 범행 전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로 경찰과 면담했는데, 그로부터 20여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후 약 1시간 뒤에 박대성은 길에 세워진 차를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차주의 피해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초기 살인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해 온 박대성은 CCTV 등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인

정했으나,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섰을 당시 “최송합니다”고 말하면서 입꼬

리가 올라간 듯한 표정을 지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안재영 기자·순천=정기 기자

박대성 범행 당시 순천경찰 음주운전 사고 ‘물의’

박대성이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던 즈음에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께 순천시 연향동 한 도로에서 순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0대) 경장이 운전하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서 A 경장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연석과 부딪힌 모습을 보고 음주를 의심, 뒤쫓아 갔다. 사고 신고 접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에 대해 직위 해제한 경찰은 다음 주 중 징계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박대성의 범행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 경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재활용 수거차량 안전점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용전동 시설관리공단 차량 보관소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와 공단 직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추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북구 제공>

‘있지도 않은 돈’ 훔치려다 20년지기 살해 60대 영장

피해자 집서 본 서랍장 노려...범행 발각되자 흉기 휘둘러

최근 여수에서 오랜 지인을 살해한 60대 피의자는 당초 피해자의 집에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피해자의 집에 왕래했던 피의자는 거실 서랍장에 돈을 보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나, 당시 서랍장에는 돈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60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거주민 B(70대·

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알던 지인 사이로, A씨는 B씨의 집 거실 서랍장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A씨는 평소 잡아온 물고기를 B씨의 집에 가져다 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B씨 역시 혼자 사는 A씨를 위해 김치 등 반찬을 주거나 집에 불러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종종 B씨의 집에서 자기도 한 A씨는 이들 가족이 거실 서랍장에 돈을 보관하는 모습을 봤고, A씨가 건강상의 이

유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나쁜 마음으로 이어졌다.

A씨는 야심찬 시간을 틈타 B씨 집 대문 근처에 보관하던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으나, 거실 서랍장을 열어보기도 전에 B씨와 마주쳤고 A씨는 부위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약 15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 사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노린 B씨의 집 거실 서랍장에 현금과 금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여수=김진선 기자

대표이사 지시로 해고된 직원 복직 길 열려

법원, 해양에너지 퇴직자 제기 소송서 ‘면직 무효’ 판결

대표이사의 지시로 해고된 직원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아 복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5일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A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2022년 5월부터 복직일까지 월 37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2명에게 취업 규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유

로 면직 처분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 결정이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해양에너지 대표이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져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증언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다른 징계위원에게 대표이사의 뜻이니,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전남대병원, 역대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불임시술휴직 남직원 포함 등

전남대학교병원이 개원 이래 최초로 완전 무분규 임금단체협상에 성공해 노사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정신 병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

장 등 병원 보직자를 비롯해 보건의로 산업노조 정재범 부위원장, 최관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대병원지부 김태신 수석부지부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했다.

최종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 ▲5년 미만 재직자 장기근속수당 월 3만원 신설 ▲운영지원직 정근수당 신설 ▲불임시술휴직에 남직원 포함토록 개정 등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경영 상황은 물론,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병원과 노조가 슬기롭게 무분규 합의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